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8월 21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 21주일 (8월 21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루카 13,22-30)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30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복음 나누기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루카 13,24)

나는 지금 어떤 문을 통과하고 싶어하십니까?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루카 13,25)

닫힌 문을 열기 위해 그저 소리만 치며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지나치거나 외면하기는 쉽지만 따르기는 어렵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기는 쉽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란 참으로 힘들다. 길을 가는 여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좁은 길이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지를 따름을 증언하는 길, 원수까지 포함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다. 이 땅에서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에 더욱 좁은 길이다. 타인의 약함과 한계와 불의를 마주하며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은 좁은 길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길을 내가 가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필 때,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불신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정말 좁은 길, 아니 불가능한 길이다. 앞서가시는 당신이 아니라 나의 허약함을 먼저 볼 때 이미 위험에 빠져 발밑이 흔들리는 길이다. 그러나 내 앞에서 나를 한 걸음씩 이끄시며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한 걸음씩 따를 수 있는 좁은 길이고, 그렇게 당신을 볼 때에만 끝내 따를 수 있는 좁은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다. 당신 자신이 고난의 길이지자 좁은 문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신만을 찾습니다." (D. 본 회퍼)



복음 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1번 "주를 찬미하여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길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